

45. 피아노 대리점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염증성 다발신경염

성별	남	나이	51세	직종	악기수리 및 판매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박○○는 1996년 1월부터 피아노대리점 수리실에서 제품 수리업무를 하던 중 2002년 8월 14일 갑자기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다발신경염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박○○의 업무는 수리 요청이 들어올 때 수리실에서 컴프레서, 신너, 호마이카, 오일스테인, 광택제 등 목제가공과 악기수리에 필요한 각종 제반 화학약품과 공구들을 가지고 피아노를 수리하는 것이었으며, 수리요청이 없을 때는 피아노 조율 작업이나 매장에서 피아노 판매 등의 영업업무도 하였다. 수리실에는 환기구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도 있었으나 조그만 공간이라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1대당 1~4일, 한 달에 평균 10일 정도로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이었다. 하루에 쓰는 락카나 신너 등의 화학물질은 200 ml 우유 pack 크기의 용량 2, 3개 정도라고 하였는데, 추출된 취급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다발성 신경염 유발 물질로 잘 알려진 노말헥산(n-hexane)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물질은 toluene, xylene, MEK, MIBK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고혈압은 없었고, 평소에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담배는 사흘에 한 갑을 피웠다. 사고 이틀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2002년 8월 14일 퇴근 후에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고 입과 손의 감각이 이상함을 인지한 후 쓰러져 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6개월간 입원치료 하였다. 이후 2005년 7월 26일 의사경과기록지에는 심한 형태의 길리안바레 증후군인 Miller-Fisher syndrome으로 진단되어있다.

4. 결론: 근로자 박○○는

- ① 피아노 수리 작업을 수행하다가 급성 염증성 다발신경염으로 진단되었는데,
- ② 이 근로자의 질환은 임상적 특징으로 보아 급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염의 일종인 길리안바레 증후군의 한 형태로 판단되며,
- ③ 작업 중 취급한 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 다발성 신경염을 유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 ④ 질병 경과로 볼 때 기타 유기용제에 의해 질병이 악화 되었다기보다는 급격히 발생한 염증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근로자의 급성 염증성 다발신경염은 작업 중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